

광주FC 신예들 '골 합작' 홈 전용구장 첫승 해냈다

유스 출신 엄지성 동점골·이희균 극장골... 인천에 2-1 역전승

광주FC 신예들이 광주축구전용구장 '첫승'을 합작했다. 광주가 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21 7라운드 홈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타진 이희균의 역전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광주 유스출신 '슈퍼루키' 엄지성이 스타 탄생을 알리는 데뷔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역시 유스출신 이희균이 골대를 가르면서 '극장골'을 장식했다.

전반 초반은 광주의 흐름이었다. 전반 3분 엄지성이 올려준 패스를 받은 '새 외국인 공격수' 헤이스가 머리로 K리그 첫 슈팅을 기록했다. 7분에는 헤이스가 코너킥 키퍼로 나서 펠리페의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공은 골대를 비껴났다. 초반 공세에도 선제골은 인천의 차지였다. 전반 14분 인천 김준범의 슈팅이 광주 수비수 이한도를 맞고 살짝 방향을 바꿔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광주가 전반 19분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다. 펠리페가 인천 문지환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고 쓰러졌고, 비디오 판독 결과 옐로우 카드가 레드 카드로 바뀌었다.

상대의 퇴장 효과에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던 공격. 전반 추가 시간 '막내'가 해결사가 됐다. 문전에서 흐른 공을 잡은 엄지성이 골키퍼를 마주하고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슈팅을 날리며 골망을 흔들었다. 금호고를 졸업하고 광주 유니폼을 입은 엄지성이 7경기 만에 기록한 프로 데뷔골이었다.

1-1 전반전을 마무리한 두 팀은 후반 초반 팽팽한 기싸움을 했다. 김주공이 후반 17분 오른쪽으로 슈팅으로 잠잠하던 공격을 깨었다.

후반 25분에는 엄지성이 다시 한번 인천을 흔들었다. 오른쪽에서 치고 오른 엄지성이 왼쪽에 있던 김주공에게 길게 공을 보내줬고, 슈팅까지 연결됐다. 하지만 인천 골키퍼 이태희가 빨랐다.

후반 추가 시간 나온 이한샘과 펠리페의 슈팅도 아쉽게 골키퍼에 막히면서 경기장에는 아쉬운 탄성이 가득했다. 후반 종료 직전 김주공이 다시 한번 골대를 노렸지만, 이번에도 골키퍼에 막혀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송승민에게 공을 넘겨받은 이희균이 오른 발로 골망을 흔들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는 금호고 출신 두 신예 선수의 활약으로 전용구장 첫승과 함께 시즌 두 번째 승리에 성공했다.

이희균은 "겨울부터 힘든 시간이 많았다. 생일 다음으로 가장 좋은 날인 것 같다. 그동안 내 능력을 못 보여줘서 축구가 이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다"며 "발만 맞추지는 생각이었는데 잘 들어갔다. 데뷔골을 항상 생각했었다. 날으면 울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고 웃었다.

엄지성은 "실감이 안 난다. 첫 선발 출장이라서 기회도 많았고 간절했다. 최대한 집중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무릎 세리머니 이후 동작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웃음).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형들과 좋은 경기 이길 수 있어서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7라운드 광주FC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전반전 추가시간에 동점골을 넣은 광주 엄지성(왼쪽)과 후반 추가시간에 골을 넣은 이희균.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장 보선 5월 13일 치른다

시체육회 선관위 선거일 확정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오는 5월 13일 치러진다. 시체육회는 지난 2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열고 이같이 선거일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또 이달 중으로 각 회원단체에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선거인 자격 여부를 판단한 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선거인들에게 명부 열람 및 의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명부를 확정한다.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5월 2일~3일이며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4

일부터 선거일인 13일까지다. 선거 운동기간은 4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2일까지다.

김선광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선관위 위원들과 함께 규정과 절차대로 공정정대하게 준비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는 김창준 회장이 지난달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다. 지난 29일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최종 접수한 결과 이강근(67) 광주시당구연맹회장, 이상동(58)광주시 북구체육회장, 전갑수(61)광주시 배구협회장이 서류를 제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주 출신 마라톤 심종섭, 올림픽 티켓 극적 획득

개인 최고기록 경신하며 도쿄행

지난해 전담으로 연구지를 이전한 한국전력 육상팀 심종섭(30·한국전력)이 극적으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나주 출신인 심종섭은 4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선발전'에서 2시간11분24초로 42.195km 레이스를 마쳐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2시간11분30초)을 통과하며 우승했다.

2시간11분24초는 심종섭의 종전 개인기록 2시간12분57초를 1분33초나 앞당긴 기록이다.

심종섭은 경기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말 기쁘다. 훈련 때는 2시간 9분, 10분대 페이스로도 뛰었다"며 "4개월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도쿄올림픽 본 무대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재룡 한국전력 감독은 "마지막까지 긴장했다"고 웃으며 "심종섭이 어느 때보다 많은 훈련을 했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잡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심종섭이 기준 기록을 통과하면서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한국 남자마라토너는 두 명으로 늘었다.

귀화 선수 오주환(33·정양군정)은 2019년 10월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딴 심종섭(오른쪽)이 김재룡 한국전력 감독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이미 2시간08분42초로 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심종섭의 올림픽 기준 기록 통과는 무척 극적이었다.

세계육상연맹은 '마라톤의 올림픽 기준기록 통과 인정 기한'을 2021년 5월 31일로 정했다.

풀 코스를 완주하면 오랜 회복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마라톤 특성상, 이번 대회가 끝나면 올림픽 기준 기록 통화에 도전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 선수 47명이 출전해 '마지막 기회'에 도전했다.

심종섭은 '올림픽 기준 기록 통화가 가장 유력한 선수'로 꼽혔다. 실제로 심종섭은 역주를 펼쳤고, 올림픽 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도 출전했던 심종섭은 두 대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영예를 누렸다.

심종섭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 더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수영 희망' 황선우 올 첫 전국대회 5관왕

'한국수영의 새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사진)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올해 첫 전국대회를 5관왕으로 산뜻하게 마무리했다.

황선우는 2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1회 김천 전국수영대회 마지막 날 남자 고등부 혼계영 400m에서 이수민(배영), 최명재(평영), 심완준(접영)에 이은 서울체고의 마지막 자유형 영자로 나서서 3분44초13의 기록을 합작하고 우승을 일궈냈다.

이로써 황선우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종목인 자유형 100m와 개인혼영 200m, 그리고 단체전인 계영 400m·800m에 이어 혼계영 400m까지 우승하며 5관왕에 올랐다.

5관왕은 이번 대회 최다관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열린 2020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92의 세계주니어기록을 세운 황선우는 1일 국제수영연맹(FINA) 공식 인증서를 전달받는 등 기분 좋게 시즌 첫 대회를 지냈다.



이미 주 종목인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도쿄올림픽 기준기록을 통과한 황선우는 5월 13~17일 열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태극마크에 도전한다.

여자 일반부 혼계영 400m에서는 울산시청이 4분13초27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019년에 한국기록을 7개나 새로 썼던 정소은은 울산시청의 자유형 영자로 우승에 힘을 보태고 4관왕이 됐다.

정소은은 앞서 자유형 50m와 100m, 계영 400m에서 1위에 올랐다.

경기 후 정소은은 "이젠 남은 기간 자신 있게 도쿄올림픽 선발전 준비에 꼭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선대 강양현 감독, 남자농구 3대3 국가대표 감독에

조선대학교 농구부 강양현(사진) 감독이 남자농구 3대3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대한 농구협회는 "도쿄올림픽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한국 남자 3×3 대표팀을 이끌 감독으로 조선대 강양현 감독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강 감독은 조선대 출신으로 20대 중반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올해 40세의 젊은 지도자다. 15

년 넘는 지도자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12년 부산 중앙고 감독 시절 5명의 선수로 협회장기 준우승 선화를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선수 중 한 명이 서울 삼성 선전에서 활동했던 천기범 선수다.

강 감독은 "저는 5대5 농구를 전문으로 했었기 때문에 3대3 농구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다"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착실히 설명하고, 젊은 지도자



로서 선수들과 소통에 강점이 있다고 내세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감독은 조만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참여한다. 이후 내달 도쿄올림픽의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트라이아)로 떠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고질라 VS. 콩
3관	자산어보, 아무도 없는 곳, 최면
4관	자산어보, 최면
5관	자산어보
6관	고질라 VS. 콩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씨네리틀	미나리,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8관 씨네리틀	최면, 해질녘, 커피 오버 티, 싱크로너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